

m 만화속세상 뉴스 스포츠 아고라

속세상 홈	연재만화	나도만화가	만화게시판	특집	스크롤	뷰어
전체목록	요일별	작품별	작가별	연도별	완결	
MON 행오프 So many 어게인 술 파페 포포 모모래 꼴	TUE 미스크라 눈코입 미확인 세브리깡 나. 임신 그는 불안.. 방벽동 꼴	WED 행오프 강팀장 비행접시 세브리깡 12월 그는 불안.. R에 관해서 꼴	THU 체이서 어게인 미스크라 술 매리는 외박 모모래 꼴	FRI 체이서 눈코입 매리는 외박 R에 관해서 방벽동 꼴	SAT 아츠로 그집사정 에이스 쁘다빠다 미확인	SUN 업그라운드 이블엔젤 환상스캐치

출처 : <http://cartoon.media.daum.net>

‘웹툰’, 새로운 장르로
발전 가능성 무한



왼쪽면. 다음(Daum) 웹툰 연재란
1 조석, <마음의 소리> 표지
2 허영만, <꿀> 표지
3 조석, <마음의 소리> 본문 일부
4 허영만, <꿀> 본문 일부
5 강풀의 '순정만화' 내용

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만화계. 이런 와중에 희망의 빛을 보이는 분야는 웹툰이라 할 수 있다. 웹툰은 'Web'과 'Cartoon'의 합성어로 만화의 한 장르로 분류되지만 만화와는 다른 웹툰만의 특성이 있다.

새로운 장르로 이목을 끌고 있는 웹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△웹툰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다양한 연령 군을 독자층으로 확보하고, △비평가들의 평론이 있어야 하며, △2차 저작물의 적극 활용과, △웹툰 출판물의 대여점 구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.

이같은 주장은 동원대학 광고편집과(학과장 금창연교수) 학생들이 주관한 학술포럼(지도교수 부길만)에서 제기되었다. 동 대학 광고편집과는 구랍 4일 동대학 403호에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.

이날 포럼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한 이대수·이지향·이인선·최흥기·김소정 씨는 '웹툰 출판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'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.

주제 발표자들은 웹툰의 특성에 대해 △인터넷상에서 연재된다는 점 △무료로 배포된다는 점 △작가의 구성이 다양하다는 점 △소재의 제한이 없다는 점 △일반 만화보다 색상이 깔끔하다는 점 △실시간 업데이트가 된다는 점 등을 들며 발전 가능성이 충분함을 제시했다.

동 연구는 2002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출판된 웹툰을 조사 대상으로 삼아 그 출판 현황과 특성을 살펴본 다음 이를 토대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.

웹툰은 모든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블로그에 게재되고 있고, 그 종류도 매우 많다. 곧, 가상 세계의 형태를 띤 웹툰인 3D툰, 시(詩)의 형식을 취하는 포엠툰(Poemtoon), 수필처럼 일상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에세이툰, 사진을 배경으로 하는 포토툰, 캐릭터의 성격을 부각시키는 캐릭터툰, 영화의 홍보 또는 평론을 목적으로 하는 무비툰, 패러디와 결합시킨 패러디툰 등 참으로 재미있고 다양한 종류를 보이고 있다. 최근에는 삼성, GM대우 등 기업의 홍보를 위해 만들어지기도 한다.

이러한 웹툰의 출판은 3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, 다음, 파란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. 구체적으로 웹툰 출판물의 수는 네이버 25종, 다음 14종, 파란 1종 등 모두 40종에 이른다. 쇠퇴해가는 일반 만화와 달리 웹툰은 현발행량이 증대하고 있는 것. 2002년 10월에 나와 50만 부 이상 판매된 심승현의 <파페포포 메모리스> 외에도 강풀의 <순정만화>, 조석의 <마음의 소리>, 허영만의 <꿀> 등은 베스트셀러로 부상하고 있다.

한편 현재 웹툰 출판의 발전 가능성은 크지만,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. 이런 상황에서 이번 논문은 웹툰 출판에 관한 최초의 연구라는 데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.☺